제356회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2월22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보고
   가. 통일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통일부 산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간사선임의 건
3.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 업무계획보고 ····· 3
   가. 통일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통일부 산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간사선임의 건 ····· 8
3.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석진·김기선·김성원·김정재·문진국·박대출·박맹우·엄용수·염동열·윤종필·이만희·이양수·이헌승·장석춘 의원 발의) ····· 8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승희·박맹우·성일종·박성중·이진복·여상규·원유철·이채익·김영우 의원 발의) ····· 8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주승용·노웅래·손금주·신창현·김민기·조배숙·김관영·이종걸·문희상·송기석·장병완·김동철 의원 발의) ····· 8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이동섭·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 의원 발의) ····· 8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이원욱·원혜영·김정우·박정·송옥주·이수혁·인재근·신창현·문희상 의원 발의) ····· 8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고용진·손혜원·안호영·박찬대·조승래·노웅래·윤관석·이춘석·박주민·추미애·김정우 의원 발의) ····· 8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신창현·유은혜·기동민·전해철·김정우·김종대·위성곤·송옥주·이해찬 의원 발의) ····· 8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이동섭·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 의원 발의) ····· 8
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9
1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9
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정유섭·성일종·김선동·김상훈·정진석·원유철·유기준·윤상직·김진태·여상규·정양석 의원 발의) ····· 9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권은희·김정우·손금주·노웅래·조승래·이찬열·정춘숙·이종걸·박선숙 의원 발의) ····· 9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통일부 산하기관의 신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출범한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 분야 국정의 성과 등에 대해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새해 시작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이루어진 일련의 각급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참으로 의미가 크고 또 깊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어렵게 찾아온 만큼 지금의 남북대화 국면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 정착을 위한 추동력으로 이어져서 북한의 비핵화 및 무력 도발 중단 등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를 비롯하여 이산가족 상봉 및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 인도적 문제, 남북경협 재개 문제 등 남북 간에 시급히 풀어야 할 많은 과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제들의 많은 부분이 북한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요한 만큼 그 해결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작지만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진전을 이루어서 금년이 평화와 협력, 교류가 넘치는 건강한 남북관계 실현을 위한 기념비적 이정표를 세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부 측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또 일반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 과정에 제기

된 여러 제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정책 현장에 폭넓게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 회의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함께 빕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되 질의는 간사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통일부 및 민주평통 소관 신규 의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일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개헌 문제에 관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석이 늦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

1. 업무계획보고

가. 통일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통일부 산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4시15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통일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 가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협력을 토대로 균형 잡힌 대북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남중 통일정책실장입니다.

정승훈 정세분석국장입니다.

김병대 인도협력국장입니다.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입니다.

김의도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이무일 통일교육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임병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 업무 추진 여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등을 통해 남북관계는 복원 과정에 진입하였습니다. 남북 간 연락채널이 복원되었고 남북회담이 2년 1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및 김여정 특사를 포함하여 선수단·예술단·응원단·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인원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였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주장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선순환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지원·견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국면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 2018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남북대화를 활성화하고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남북대화 추진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대통령 방북 초청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관련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우선 주력하겠습니다.

후속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고위급회담 정례화 문제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남북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체육·종교·민족문화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단체 및 지자체의 다양한 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산림 복구 및 병충해 방제, 수자원 공동이용, 산불 방지 등 남북 자연재해 공동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UNFPA '2018년 북한인구총조사' 지원, 동방경제포럼 참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추진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법·제도 정비, 민간·지자체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및 지원 현황은 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재개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생사 확인, 고향 방문 및 성묘,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내실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과 말라리아·결핵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전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입니다.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 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 변화를 견인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정부 부처 협업 아래 기존 남북합의 및 변화된 환경 등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남북대화 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대북 설명계획을 마련하고 국제 학술행사 및 민간·전문가 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및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통일약속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가칭 '통일을 위한 약속' 도출을 목표로 2018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상부구조·하향식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플랫폼' 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성·균형성을 고려하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치적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협약' 등 구체적인 결과물보다는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소통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통점을 도출·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앞으로 탈북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 하며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제2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를 재구축하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탈북민포털 등을 통한 민원 서비스도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지자체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하나센터 운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취약·부적응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입니다.

통일교육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 등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연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조명균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민주평통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민주평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무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안나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점준 통일정책자문국장입니다.

전난경 위원활동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민주평통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의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제18기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 개최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내 지역회의는 국내 자문위원 1만 6080명을 대상으로 7월 중 광역시·도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 지역회의는 3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주지역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18기 해외 지역회의의 1차 회의는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 참관과 연계하기 위해 예년보다 일찍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차 해외 지역회의는 9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의견 수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의 제·개정 및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분기별로 심의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활동 방향 정립 및 대북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0개 분과위원회별로 분야별 정책 건의를 추진하며, 현안사항 발생 시는 수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민 소통과 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평화통일포럼은 17개 시도별로 5회씩 총 85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진행하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분기별로 통일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자문 건의와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별 정책회의는 5개 직능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며,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과정형 및 협업형 등으로 연중 80여 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통 대표 브랜드 사업 중 하나인 통일 골든벨은 국내외 고등학생 16만 7000명 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예선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결선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탈북민 지원 차원에서 탈북 청소년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문위원 통일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자문위원 연수는 지역별·대상별로 맞춤형으로 실시함으로써 정책 건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및 여성 자문위원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도 청년 및 여성 위원장 회의, 전국 청년 및 여성 분과위원장 회의 등을 통해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별 청년 및 여성 특화사업을 연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지식서비스 및 통일자료 지원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영상 콘텐츠로 연간 총 35편을 제작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관지 '통일시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자문위원들과 국민에게 다양한 통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해외 통일 지지 기반 확대입니다.

금년 해외 평화통일포럼은 기존의 미·중·일·러 중심의 개최에서 통일 논의의 지역적 다변화를 기하기 위해 베트남·카자흐스탄·뉴질랜

드·EU 지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역시 지역별로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에서 연중 20여 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 청년 및 여성 컨퍼런스는 상반기에 미국 지역에서 여성 컨퍼런스를, 하반기에 일본 지역에서 청년 컨퍼런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 등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최신 정보 등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민주평통 주요업무현황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황인성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고경빈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2018년 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수 사무총장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일반현황, 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7년 실적 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탈북민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탈북 청소년 장학 사업과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의 정착 지원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수 정착사례 발굴을 홍보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운영 혁신과 업무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지원과 관련해서는 하나원·재단·하나센터를 연계해서 수요자 맞춤형 사례 관리를 내실화하고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착도우미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착 지원 관련 공공·민간의 정보·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연계하며, 지역 탈북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하나센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령자 그리고 재·출소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립·자활 지원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촉진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영농정착·창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고 다양한 영역의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업 역량과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진로 설계, 취업 상담 및 사후관리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탈북민의 취업현장 연수로 기술 습득 및 직업 환경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여성 중심의 실질적인 구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육개발 및 지원 분야입니다.

통일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정착 단계별로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 리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하며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학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시설 및 학교 적응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교육 및 보호시설 지원을 내실화하고 무연고 청소년 등 관리 업무를 개선하면서 통일전담교육사를 통한 탈북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 통합 및 상호 인식 제고 분야입니다.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와 관련해서는 탈북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모범적인 탈북민 정착 사례를 발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면서 홍보 소재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주민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주민이 같이 착한(着韓)봉사단을 구성해서 사회통합형,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외 협력과 관련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민간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선진사례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기부금 사업을 확충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분야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 기반 실용 연구를 확대하며 정보화 및 정보보안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고경빈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이승환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북협회는 지난 2007년 남북 당국 간 합의 사업인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우리 측 총괄이행기구로 출범한 이래 남북 간 원활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협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교역지원실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4개 업무 중 첫 번째, 9페이지에 있는 남북교역 및 경협 관리 업무입니다.

현재 남북교역이 중단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교역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남북교역 관련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원활한 남북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신경제지도 및 동북아 경제협력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역 재개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남북교역 중단 이후 경영난을 겪은 교역·경협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인원·물품·수송장비 등의 이동과 관련한 제증명서 발급과 예비검토 업무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 차단을 위한 정부 업무 지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경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으며 실무교육 등을 통해서 남북교역 생태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 부분의 남북교역 추진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 국내외 전문가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네트워크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남북교역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교역·경협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실태를 파악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부와 밀접한 연계 속에서 기업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협회가 우리 측 총괄이행기구로 지정된 경제협력사업으로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단천지역 광산개발을 위한 연구와 준비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하자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해서 정부와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북한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상환과 향후 협력사업 재개 등에 대비한 준비 업무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대북 지원 사업 통합관리 체계 구축·운영 업무입니다.

지난해 구축된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대북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북 지원 사업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남북 당국 간 통신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남측 관리구역 남측 구간의 광통신망을 유지보수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승환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의는 다음 순서에서 상정할 간사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통일부 및 민주평통 소관 의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간사선임의 건

(14시41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새로운 교섭단체로 구성된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선임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태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태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태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당 간사였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함으로써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외교통일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서 그 역할을 다 하는 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일부 및 민주평통 소관 신규 의안에 대한 상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3.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석진·김기선·김성원·김정재·문진국·박대출·박맹우·엄용수·염동열·윤종필·이만희·이양수·이헌승·장석춘 의원 발의)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승희·박맹우·성일종·박성중·이진복·여상규·원유철·이채익·김영우 의원 발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주승용·노웅래·손금주·신창현·김민기·조배숙·김관영·이종걸·문희상·송기석·장병완·김동철 의원 발의)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이동섭·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 의원 발의)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이원욱·원혜영·김정우·박정·송옥주·이수혁·인재근·신창현·문희상 의원 발의)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고용진·손혜원·안호영·박찬대·조승래·노웅래·윤관석·이춘석·박주민·추미애·김정우 의원 발의)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신창현·유은혜·기동민·전해철·김정우·김종대·위성곤·송옥주·이해찬 의원 발의)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이동섭·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 의원 발의)

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1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정유섭·성일종·김선동·김상훈·정진석·원유철·유기준·윤상직·김진태·여상규·정양석 의원 발의)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권은희·김정우·손금주·노웅래·조승래·이찬열·정춘숙·이종걸·박선숙 의원 발의)

(14시43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6·25 전쟁 납북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납북피해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그 기본적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량의 납북자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오랜 기간 납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도 과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6·25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였음을 감안하면 전쟁 당시에 생존했던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피해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 납북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이 전쟁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초과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와 관련 상담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변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협조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이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을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불명자는 881명으로 일반 국민 대비 높은 수준이며, 2012년 이후 2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신변보호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신변보호와 관련 상담 업무를 제공하여 탈북민이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를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과의 접촉에 있어서 간접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접 접촉의 2배에 이르고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촉진이라는 현행법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 접촉 후 신고의무자의 허위 신고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등 간접 접촉에 대한 사후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경색을 신고수리 거부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통일부장관의 재량권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경색' 역시 추상적·불확정적 문언에 해당되어 구체적 사안의 해석에 있어 통일부장관이 재량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분야 이외에 체육·학술 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한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체육·학술 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를 명확히 포함할 수 있으나 교육, 관광, 예술, 출판, 종교, 환경 및 농업 등 다른 분야의 포함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있어 정부의 책무가 오히려 축소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체육·학술·보건·의료 분야의 추가 규정 실익, 사회문화 분야와 인도적 지원 범위 관련 기존 법령 체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자문위원 중 부의장의 여성 비율을 현행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9 이상'으로 개정하고, 해외 자문위원을 각 국가별 재외동포 수에 비례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국가별로 최소 3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지역회의의 지역 구분을 현행 일본·중국·아세안·미주·유럽에서 대륙별 편제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민주평통 부의장 임명에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활발히 하는 차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 직능대표 및 해외지역 자문위원 중 여성 자문위원은 29.6%로 부의장 중 100분의 49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할 경우 부의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를 발굴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자문위원을 재외동포의 수에 비례하여 위촉하고, 국가별 최소 위촉위원 수를 규정함으로써 통일·공공외교 기반을 넓히고, 자문위원 활동의 국가별·지역별 편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거주국의 외국인 정책, 재외동포의 구성 등 현지의 여러 사정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회의를 대륙별 편제로 변경할 경우 재외동포 수, 지역협의회 수, 자문위원 수, 전략지역에 대한 고려와 지역별 자문위원 수 및 지역협의회 수의 편중이나 과소 문제에 따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역회의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유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및 통일부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유기준 위원 위원장님, 법안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오늘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위원장 심재권 아닙니다. 일괄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위원장 심재권 보충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것은 너무 또 늦고.

원래 위원회 진행을 할 때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현안보고가 있으면 법안 상정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질의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순서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합쳐서 한다면 위원들의 질의가 부실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법안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를 함께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의논해서 추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질의할 때 법률 토론,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걸 안 하니까, 법안에 대해서 어제도 보면 한 분도 얘기를 하신 분이 없어.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위원장 심재권 간사님들께서 논의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하나재단, 지금 탈북민 중에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숫자 좀 저한테 알려 주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예,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북한에서 이번 평창 폐회식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거기에 이제 또 이방카 고문이 미국에서 오잖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는 못 이루어져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전망을 어떻게 하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북측에서 폐막식에 참석하는 대표단 명단이 오늘 오전에 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에 대화가 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개최국이니까,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을 열고 있는 주최자잖아요? 그래서 두 손님들에 대해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일부가 노력을 해 주는 것도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정부가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면 좋은데 안 만나도 그뿐이다'보다는 온 손님들끼리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통일부로서는 저희 통일부가 상대하는 북측 대표단에게는 우리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번 개막식 때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도 여러 차례 저희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에서 북측 대표단과 함께 저희가 그런 입장을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양측에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 양측에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미국 측에는 또 관련 부처가 있으니까 관련 부처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게 해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도 북·미 간 어떤 접촉이 있어야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대북 특사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합니까? 대북 특사라는 것은 우리 남한과 북한 당국자 간에 서로 비밀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좀 더 무르익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북 특사인데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대북 특사 보내는 것은 가능한 게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북 특사 역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는 문제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대화가 시작되도록 견인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북 특사의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특사도 대북 접촉이 있은 뒤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니요, 특별히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습니다. 북·미 접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평창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또 긴장 국면으로 가려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나 미국에 또 있어요. 그런데 평화 분위기를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에 특사 보내는 것은 그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미국과의 접촉을 구현하는 일도 특사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지켜 내는 주도적인 입장에 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다음에 동계아시안게임 개최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최문순 지사가 남북 공동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북쪽에서 장웅 IOC 위원이 또 화답을 했잖아요, 가능한 일이라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검토를 좀 하고 있나요? 말하자면 그 일이 쉽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좀 촉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에 이러한 체육 교류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 초보적으로 나온 제안들이고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현 위원 또 언론에 자꾸 나오길래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미국 NBC가 보도한 것이요, 국방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전에 주한미군 가족동반 문제를 제기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석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NBC 나름대로 전망을 보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가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당장 이 조치를 백악관이 고려하지 않지만 가족을 데려오는 게 허용되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추정 보도를 했던 거예요, NBC가.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은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어떻게, 누가 부인했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주한미사령부에서도 '그러한 보도, 그러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 그러한 조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제 날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현 위원 헛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은.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자꾸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고하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하는 것을 자꾸 릴리스(release)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면담을 펜스 부통령이 요청했는데 취소되었다 하는 그런 미국 측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으로서 볼 때는 좀 그럴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같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미 간 대화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난번에는 펜스 부통령이 평소에 거친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을 또 많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냥 만나 보지 않고도 무슨 말을 할지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방카 고문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런 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조합이 아니겠는가, 그 둘은.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가요. 손님을 이쪽저쪽 초청했으니까 손님끼리도 좀 만나서 대화하도록 하는 일을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로서는 저희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미 간 대화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께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부터 평창올림픽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속도조절론이 나왔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속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과속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험 많은 우리 통일부장관도 도취된 나머지 과속에 기여한 것은 혹시 없는가 하는 것 제가 묻고 싶고, 그런 아쉬움이 반드시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험 많은 장관에게 기대했던 것은 늘 남북관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남남갈등 문제 또 동맹 간의 균열 문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협상, 장관께 그런 경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쉬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관이 소위 대북접촉이 많아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남북 간에 북한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되 남남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장관의 사고는 과거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고 한다면 장관처럼 경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이런 속도 조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지, 야당도 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이렇게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취소되고 바로 북한에서는 대통령께 평양 초청 카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려된다.

어떤 측면에서 우려되느냐? 북한이 핵 폐기를 요구하고 또 탈북자를 만나서 북한 인권을 껄끄럽게 이야기하는 미국과는 만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 요구를 있는 대로 다 쉽게 받아 주는 대한민국과 대화하겠다. 쉬운 상대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장관은 굉장히 무거운 책무를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하는 데는 전혀 이유가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장관 업무보고에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 문제가 전제가 아니어도 남북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모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자꾸 국회에서 보고하면 북한은, 소위 북한의 당국자들은 우리 내용을 잘 보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 다 알고 있어요.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줬어요. 그게 어떻게 경험 많은 장관의 협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 들어 볼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지만.

한미 군사훈련 축소,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NBC 인터뷰에서 이야기 했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북한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다 이야기했어요.

마식령 훈련, 금강산 합동 관광도 대통령께서 대선 예비후보 시에 이야기했고, 통일부도 5월에 평창의 5대 기본 구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식령 간 것 정말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또 최문순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크루즈 보내라. 아니면 아시안게임처럼 만경봉호 북한 선박으로 올 수도 있다.' 문정인 특보, '북한이 평창에서 체제 선전하더라도 내버려 두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 북한이 정말 우리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쉬운 상대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또 이랬어요. 그동안에 우리 평창올림픽에 보내겠다는 사람 혹은 선박, 항공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다 유엔 안보리 결의 혹은 미국의 독자제재, 우리 제재가 걸린 사항들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걸려 있는데 아무 데나 놓고 해도 우리가 문 다 열어 줬어요. 알아서 미국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총 9건의 제재가 걸려 있었는데, 또 그 제재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결의가 되었을 때 정말 잘했다고 박수 친 제재가 많았어요.

물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겠다는데 또 그런 교통편을 이용하겠다는데, 평창이 성공해야 다음 대화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는 노(No)라고 말하지 않고 다 알아서 열어 준 거예요.

미안하지만 장관님을 아주 쉬운 상대로 북한은 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조 장관은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이번에 또 폐회식 때 북한에서 방문하는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열어 줄 것이다.

결국은 동맹 간에 동맹의 균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수가 없는 거예요. 노(No)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통일부장관은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가서 이제 북한은 '미국은 안 만나고 대한민국과 만나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비핵화 전제 없는 정상회담 가능하고 장관도 그렇게 남북 고위급회담 만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서,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핵 문제는 대한민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빠져라',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핵 문제는 미국과 할 이야기이다.' 그러면 우리는 남북 교류나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것으로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동맹국이나 외국에서 장관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거 봐라' 그럴 겁니다. 많은 우려가 됩니다.

속도 조절, 장관 소신껏 또 여러 가지 제재도 풀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가 엄청난 부담이다. 정말 함께 가지 않으면 멀리 못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달라, 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늘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이 자기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고 하고, 또 혹은 우리가 그것을 잘못 중재하려고 한 나머지 장관처럼 '군사 퍼레이드도 다 나름 이유가 있다', 장관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다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고 별개로 보면…… 이렇게까지 소위 북한 입장을 전달해 주니까 늘 내부에 갈등이 있고 북한은 쉽게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토론이 길어집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오늘 통일부 그다음에 평통 업무보고에 탈북민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되었어요. 지금 이분들이 정말…… 물론 한 20%

정도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정말 적응하기 힘들다' 그런 생활고도 토로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활고 충족 차원의 문제일까요?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 불러서 만나 주고,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또 부통령도 와서 만나 주는데 우리 정부, 우리 장관 취임하셔서 강조했지만 우리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런 따뜻한 마음 얼마나 가졌어요? 이분들에게는 생활고도 생활고지만 대통령과 장관의 따뜻한 관심이 정말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 궁여지책은 결국 통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길었는데요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의 큰 맥락은 정부가 너무 과속하지 말고 우리 국민 여론 또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것을 잘 균형을 맞추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길면 긴 기간입니다마는 북한에서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에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 나오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부의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정부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점은 저희 스스로 많이 반성도 하고 앞으로 해 나가는데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비핵화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하신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상당히 엇갈리는, 대화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견인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업무보고에 표현된 우리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것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남북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 자체를 거의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순간에 북한은 그것을 듣지 않거나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또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할 때마다 북한이 거의 경청을 했고, 우리는 또 그것을 반복해서 북한에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계속 그러한 부분을 살려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많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정부로서는 탈북민에 대해서 실질적인 탈북민의 정착,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직접 탈북민들과 많은 접촉을 갖고 만나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저도 꽤 길게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좀 끊어서 해 보겠습니다.

평창에서의 평화의 시간 이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통일부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두 대목 아쉬운 점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대체로 잘 준비해서 평화라

는 아주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관님뿐만 아니라 통일부 관계자들한테 응원의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평창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평창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급해서인지 실제로 평창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비핵화의 해법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통일부가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그 평화의 시간에서 통일부의 시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자체로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잘 준비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더 중요한 우리의 문제의식이 놓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평창이 어떤 의미에서 제1차 평화의 기적이라면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제2차 평화의 기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은 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의 정세가 저는 크게 다르다 이렇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떤 정세 인식이신지 우선 좀 물어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이 계기를 통해서 북한이 대규모 다양한 대표단을 보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 간에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남북관계 또 한반도 비핵화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던 상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역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통일부가 남북관계 측면에서 이러한 것을 이어 나가고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고 또 저희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공교롭지만 북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완성되었거나 완성에 가까운 시점으로 들어선 시기와 평창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창 이전과 이후 정세가 굉장히 다른 정세로 우리가 구분해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새로운 전략의 하나가 저는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과 끈질기게 비핵화의 해법을 찾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전의 정세 속에서는 제재와 대화를 연계시켰다면—사실상 우리 정부도 연계시켰었다고 저는 보는데요—이제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한미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재와 대화가 실질적으로 병행하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서로 모순된 이야기 같지만, 노자에서 상반상성(相反相成)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이런 과정의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세는 일시적으로 조성된 정세가 아니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인 정세인데요. 중장기적인 정세이고 또 전략적인 정세로 저는 보이는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상반상성의 과정을 통해서 남북관계도 발전시키고 비핵화의 해법도 궁극적으로는 열어 버리는, 다시 정반합 통일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이전 식의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측근, 실력자 혹은 정보기관 이런 것에 의존해서 디자인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기관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통일부가 무척 중요하고 통일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고 콘텐츠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하나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회담으로 곧바로 가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판단대로 또 예측대로 특사를 거쳐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조차도, 특사가 오가는 과정에서조차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 장관이나 정부의 총리의 역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공식성·공개성 또 국민적인 어떤 동의, 설득력 이런 것들이 매우 비중 있게 고려되고 또 검토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사를 언제 보낼 것이냐, 정상회담을 언제 할 거냐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가지는 평화의 힘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동반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핵동결의 가능성 또 그 시그널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컨대 도발행위의 중단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북의 어떤 동의 내지 입장 이런 것들을 통일부가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내고 그래서 북·미 관계나 남남갈등의 어떤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잃어버린 10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남북관계에서 잃어버린 10년 이것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그런 미래지향적 콘텐츠의 개발 이런 것들을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제지도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오늘 하셨고, 통일협약을 통해서 또 사회적인 어떤 갈등, 국민적인 통합 이런 것들의 길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의 길을 찾는 이런 길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다 지지하고 동의합니다만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은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을 여당 수준에서 혹은 여당 그 이상의 수준에서 실질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좀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장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 평창의 과정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되었다면, 소통이나 설명이 더 많았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어떤 입법주의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아니라 정상화된 상태 속에서 남북관계가, 남북관계의 정상화·제도화 이런 수준에서 이런 문제들이 접근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장관님, 좀 추가답변 듣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특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뒤에서 주신 세 가지 주문과 관련해서는 하나같이 다 저희가 새겨들어야 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북관계, 특히 특사라든가 정상회담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또 공개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짧은 과정이었습니다만 지난 1월 1일 이후에 풀어 나오는 데도 이런 점을 저는 늘 의식하고 했고, 또 실제로 저희 정부 내에서 이런 문제들의 대책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입장에서 해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앞으로, 과거 잃어버린 10년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평창 이후라고 하는, 포스트 평창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최근에 저희 통일부에서는 설명을 하면서 비욘드 평창, 그래서 평창을 넘어서서 좀 더 길게 보고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신경제지도라든가 또 통일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도, 아까 위원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짧은 기간에 처리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특히 야당에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함이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보완·발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때 통일부장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잘 끝나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참 어려웠어요. 한국도 어려웠고 동북아 전체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도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말 전쟁. 말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구먼, 말 전쟁. 그리고 전쟁 분위기 고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가 매우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집단이나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분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내부의 정치를 위해서 북한 핵 도발 문제를 이용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최근의 객관적 정황과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본 미국과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북한은 집단생존권을 위해서 자기가 핵개발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죽 해 왔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 이런 식이 있고, 또 미국은 북한 핵이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했지요?

거기에서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뭐냐? 서로가 오해하든지 누가 거짓말하든지 그거 아닙니까? 하나는 내 생존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 한쪽은 아니다, 공격용이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틈새를 한국 정부가 잘 이용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느냐? 오해가 있으면 풀어 주고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준비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은 끝나는 순간의 해결용이에요. 그 전에 이러한 것들, 오해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장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특히 북한 핵개발의 의도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국제사회가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그 사이에 틈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한국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그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고, 그래서 비핵화는 저희가 반드시 목표가 되어야 되지만 또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제기하는 북한의 체제 안전, 생존 이런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대책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3~4월, 5월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참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강창일 위원 그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통일부가 하는 일이 뭐 있느냐', 통일부 폐지론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폐지해 버려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부터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혹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져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통일부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체육 교류 문제, 문화 교류, 학문적 교류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참…… 이게 전부 통일부, 그다음에 경협 문제도 전부 통일부가 주도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단 하나,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여기 하나재단 와 계시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예.

○강창일 위원 하나재단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통계자료를 봤더니 초등학교가 1027명, 중·고등학교가 2538명, 대학생이 1890명으로 나와 있어요.

학비 문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초중고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강창일 위원 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고등학교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어디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고등학교도 해 줘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예.

○강창일 위원 무슨 자금으로 합니까? 고등학교는 유상인데, 무료가 아닌데 어떤 돈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장학금 제도입니까, 뭡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

○강창일 위원 잘 모르고 있구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일 위원 잘 모르고 있구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예.

○강창일 위원 남북교류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아니, 협력기금은 아닙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니요, 협력기금이 아닙니다. 아니고……

○강창일 위원 자, 됐습니다. 뭐로 지원하고 있는지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강창일 위원 그리고 대학생 1890명 말이지요, 이분들은 학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국·공립대학은 역시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사립대학은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하고, 개인이 절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예, 나머지 개인 부담하는 부분도 많은 학교에서 학교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장학금 제도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예.

○강창일 위원 제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이분들이 안 그래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학교육까지, 고등교육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장학금 제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들어가시고요.

황 평통 사무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예.

○강창일 위원 다니다 보면 말이지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야당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요즘 지역 현장에 가 보면 평통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참 많이 보여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리고 또 그분들은 지역사회에서 보면 대개 뭐 명망가라고 하면 이상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통일운동 전선에 내보낼까 이것을 참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통일부에서 공무원 몇몇씩 해 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 엄청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단지 자문위의 이름만 주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통일운동에 나서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예.

○강창일 위원 처장님 뭐 의견 있으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원래 평통자문회의는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고 그다음에 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일을 자기 미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가능한 위에서 내려 먹이기 식보다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

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도록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형태의 기획과 사업 추진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단계적으로 활동력을 높여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장관님,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에서 김여정을 비롯한 김영남 이런 사람들이 내려올 때 직접 가서 만났지요, 공항에 가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때 보니까 우리 장관님도 계시고 차관도 있고 또 청와대 수석도 와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안보보좌관인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국가안보실의 2차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기준 위원 남관표 차장이 와 계셨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기준 위원 그래서 그게 적절한 예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 한 분에 차관급 두 분이 가신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것이기도 하고 북한의 기후가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조명균 장관님이 김영남 북한…… 뭐라고 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상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유기준 위원 그분을 이전에 만난 일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전에 세 번 정도 제가 만났습니다.

○유기준 위원 구면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만나자마자 '담배를 펴도 되나' 이러면서 말을, 쉽게 말하면 반말을 막 하고 그러던데 그거 듣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구먼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게 화면에 비쳐서 좀 그런데 저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뒤에 다가……

○유기준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니요, 전체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온 북측 수행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기준 위원 그분 연세가 1928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91살쯤 돼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곳인데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치 오랫동안 익숙했던 장소에서 익숙했던 사람들한테 말하듯이 하는 것은 뭔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지난번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북측 대표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남 위원장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면서 하대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유기준 위원 하여튼 언론 보도를 보면 조 장관에게 마치……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야기한 것같이 그렇게 느껴졌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저도 2015년 해수부장관 할 때 특사로 가서 수에즈운하 개통식 때 만났는데 그때는 김영남 그분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저한테 오히려 말도 안 걸고 제가 말을 거니까 아예 말을 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만큼 잘 대해 줬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공비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창올림픽이 조금 있으면 폐막식도 하고, 그 사이에 남북 간에 어쨌든 이 계기를 통해서 교류,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계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속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목표일 텐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는 진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면 또 시작이 반이다, 아니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과일을 우리가 얻는 것 같다, 이렇게 한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

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생각하기에는 네 가지가 다 현재 상황에 적용을 해도……

○유기준 위원 아니, 첫 번째의 예를 들어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마지막 단계의 바람이 불어서 과일이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정말 의외로 어떤 과실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지요. 어떻게 4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혼재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표현, 비교해 주시는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타당한 비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유기준 위원 실무자로서 이번에 담당자도 만났고 김영남, 김여정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실질적인 대화도 상당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정상회담도 지금 여기저기에서 말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꼭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한참 표현력이 약해서 어렵습니다만……

○유기준 위원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아직도 상당히 살얼음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을 쓰는데 김여정이야말로 정말 다이아몬드수저 아닙니까? 북한이 3대 세습을 거쳐서 지금 김정은 체제를 가지고 북한 정권을 휘두르면서 온갖 일들을 다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여동생으로서 내려왔으면 이거야말로 정말 다이아몬드수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간 비용을 보면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했느냐 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서 벌써 근 30억 원, 28억 6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것은 김여정이 왔던 고위급 대표단에 해당되는 게 아니……

○유기준 위원 아니, 김여정 이야기는 뒤에 하고……

먼저 교추협을 개최해 가지고 28억 6900만 원을 의결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김여정의 고위급 대표단이 22명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기준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정산 중이라고 하던데 2억 4000만 원 정도를 앞으로, 일부는 지급됐고 일부는 지급 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숙박비가 1억 3000만 원, 교통비가 5000만 원, 식비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2명을 1박당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2명이 2박 3일이니까 1박당 295만 원입니다. 하루 자는 데 295만 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교통비는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일인당으로 나눠 보니까 227만 원, 식비도 5000만 원이니까 이것도 227만 원으로서 일곱 끼를 먹었다고 가정하면 한 끼당 3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간 인원이 22명이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유기준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통일부장관 조명균 22명에 해당해서만 2억 4000만 원이 나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남측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북측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접촉하는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경호 인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까지는 이게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

○유기준 위원 정산 중이라고 한다면 청구서는 왔을 것 아닙니까? 청구서라도 줘야지.

○통일부장관 조명균 청구서가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일부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유기준 위원 일부 온 것이라도 줘야지 이런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연인원이 몇 명이 숙박을 했는지……

숙박은 22명이 했겠지. 장관님이 거기에 숙박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도 거기 현장에서 거의 새벽 2시, 3시에 상황이 끝나고 그래서 현장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좌우간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추협에서 의결한 것 또 이번에 김여정 일행에게 지급 예정인 2억 4000 이것 이외에도 지난번에 현송월이 왔을 때 2700만 원 이것은 이미 다 정산됐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아직, 보고받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짧은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또 패럴올림픽도 하는데 여기에 북한 선수단 150명이 와서 이것은 또 추가 의결 예정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아까 숙박비를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을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기준 위원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쨌든……

○유기준 위원 그리고 보세요. 북한 응원단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처음 와 가지고……

그동안에 한 다섯 번 정도 왔을 겁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 왔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기준 위원 마지막에 온 게 2014년, 그리고 2002년, 2003년, 2005년 이렇게 왔는데 2002년, 2003년, 2005년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북한 응원단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다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기준 위원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평창올림픽 때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72%가 '무리해서 참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가 많습니다. 19~29세 82.2, 30~39세 82.6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전하고 분위기가 지금 다릅니다.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이 자랄 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면서 우리 체제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가 그거 막는다고 세금 많이 쓰고 국방비 많이 쓰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돕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이번에 나타난 게 북한 응원단에 대한 태도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과도한 기대 또 과공비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야지 언제까지 문만 두드리고, 문이 안 열리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관련해서 보여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인식 그런 것은 정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저희가 남북 간 관계를 개선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그러한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러한 평창 같은 계기를 통해서 북한이 직접 참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남북협력기금 또 정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 푼도 허투루 쓰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왔고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예, 그 말을 믿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장관님, 어제 법사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경협 위원 보니까 야당 일부 위원님들이 '북한 대변인이냐. 보이는 게 없냐?', 그냥 막말에 엄청나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하고 발언들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고생하셨고요.

아마 어제 그렇게 발언하신 위원님들은 본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의 문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모욕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식령 스키장에서 우리 선수단이 훈련할 때 체류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이 다 부담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북한이 부담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경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면 북한이 체류비 부담하고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것이 그동안 남북교류에 있어서, 당국 간이 주도하는 그런 교류에 있어서 기본 원칙처럼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무튼 이번 평창올림픽은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게 제대로 개최가 될 수 있겠느냐, 긴장이 고조됐고 그다음에 외국 선수단들이 참석을 망설이고 이러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낳았는데 어찌 됐든지 지금 이번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입장권도 보니까 98%의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단일팀 그리고 공동입장 이런 관계들에 우리가 남북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잘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통일부가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이 성공하기까지, 남북관계에 지금 훈풍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창 이후가 문제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폐막식에 참석을 한다고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 이 폐막식에 참석하는 미국의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그다음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폐막식에서 일정 정도 어떻게 대화의 계기를 만드느냐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의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한미 공조가 중요하고 한미 간에 아주 세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 들어가는데, 북·미 대화나 남북대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 폐막식에서 남·북·미의 만남의 자리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가 평창 이후의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몇 가지의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지금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미사일·핵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좀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래야만이 평창 이후에 지금의 올림픽으로 모처럼 어렵게 조성된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발전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남북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취소 또는 축소 조정한 적이 몇 번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게 한 번은 보니까 92년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기본합의서입니까, 이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경협 위원 이때 보니까 남북 군사훈련이 중단됐었고 그다음에 94년인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맞습니다, 94년.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이때도 그냥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를 했던……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미 대화가 되면서……

○김경협 위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시뮬레이션으로 대체, 축소 조정을 했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번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일정 정도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도 미국과 사전에 미리 조율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이런 남북 화해 분위기가 잘 발전하고 북·미 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을 아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론도 제기되고 야당에서는 황당한 가짜 뉴스도 막 떠들고 이렇게 됐는데, '김일성 가면, 그다음에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안 든다.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른다더라.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유니폼이 인공기를 본떠서 만들었다. 경기장에 태극기 반입이 안 된다더라' 이런 가짜 뉴스가 카톡을 통해서 아주 죽 다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건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으로 가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에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통일로 길게 봤을 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서 간다고 봤을 때 그것의 기본적인 원칙은 차이를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남북 간의 공통분모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기처럼 차이를 자꾸 강조하고 확대하고 올림픽에서도 이념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화해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것이지요. 쉽게 통일로 가는 방향도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말로는 남북 화해, 관계 개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이러한 차이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남남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결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화해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왜 대화가 되지 않았던가, 비핵화 대화조차도. 이때도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 이명박 정부의, 이 정책이 과연 성공했는가.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제가 과거 정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김경협 위원 그런데 전혀 성공…… 완전 실패지요. 사실은 하나 마나 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문제는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 시기에 북한의 핵개발만 급진전을 했습니다. 북한은 아예 마음 놓고 핵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대화가 단절돼 있는 이 기간에.

오히려 비핵화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94년도의 경험, 그 이후의 6·15 2006년, 2007년의 경험들을 봤을 때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었고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대화가 아예 단절돼 있는 동안에는 북한이 마음 놓고 핵개발을 진행했던 시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비핵·개방·3000이라는 것, 비핵화를 해야만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려 주겠다. 그런데 이게 먹히느냐? 안 먹혔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그리고 필요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결국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비핵화의 문제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 나갈 필요, 이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주신 그런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 준다. 핵개발 하는 시간을 벌어 준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대화가 단절된 시기에 북한은 핵개발에 더 속도를 냈었고, 또 북한이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핵개발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시라도 어쨌든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소망스러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 지난 설 때 망향경모제 격려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의 작은 협력의 물줄기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대화의 계기나 틀을 잘 유지해서 더 진척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속에서도 장관님께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러한 기조하에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적으로 이런 공감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대화나 정상회담 관련돼서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 또 원칙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태규 위원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 관련돼서 여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정상회담의 여건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만 짚으라면 뭘까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무엇보다도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엄중한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뭔가 그것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정상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외교부장관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한 원칙 있는 대화, 원칙 있는 대화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북한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 있는 대화라는 것은 일단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가는 대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이 있는 대화 또 성과 없이 제재·압박과 연계하지 않는 대화 또 한미 군사훈련 등 튼튼한 안보태세에 변함이 없는 대화 또 그리고 민족의 감성도 중요하지만 국가 대 국가의 냉철함이 유지되는 대화, 이런 것이 원칙 있는 대화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주신 그런 원칙 있는 대화의 내용들에 대해서 저로서도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견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번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기대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배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는 각도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가 비핵화 협상을 포함해서 있는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이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것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복합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중에서 장관님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일단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오는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다만 어쨌든 북한의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에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어쨌든 이번에 북한 대표단이나 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태규 위원 그 대화의 과정에서 북한의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었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일단 진정성이라고까지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상당히 진지했다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 분위기를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규 위원 왜냐하면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는 '어쨌든 이번 평창올림픽 계기를 통해서 비핵화의 징후가 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동

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를 꺼내게 되면 북한은 진짜 거의 몇 초도 되기 전에 '그런 얘기는 남북한 간에 자기네는 안 한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우리한테 다른 얘기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듭 저희가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를 끝까지 다 경청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의 관심이 되고 있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접촉이 취소된 부분인데 이것이 두 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된 배경이 비핵화 요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소됐다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거듭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미국이나 이런 사항이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남북관계·북핵 문제의 선순환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도적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또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북·미 간 문제, 국제관계의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태규 위원 결국 북·미 간 최종적으로 이것 합의가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누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태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운전자론이라는 정권 초기의 컨셉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운전자보다는 북·미 대화든 다자 대화든 간에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촉진자 역할, 촉진자 컨셉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촉진을 잘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그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운전자하고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식과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론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촉진자로 컨셉과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주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취지를 같이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운전자론이라든가 우리 주도를 얘기할 때도 이것이 개방적이고 또 국제사회에 협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의미였지 이것이 배타적으로, 또 우리가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그동안에 그렇게 대처를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태규 위원 여기서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비핵화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꺼내지도 말라는 입장이고, 또 비핵화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간극을 메우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여기에 고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남북대화와 북한의 도발 중지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북대화를 하면서 핵실험을 중지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했을 적에 이것이 우리 정부가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군사훈련과 제재의 문제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군사훈련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계속 해 오는 훈련이고, 제재는 북한이 유엔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어서 성격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문제가 됐었는데, 북한 선수단 입국할 적에 체크되지 않은 인력이 들어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선수단이 대한민국에 입국, 이게 입국입니까? 입경입니까? 언론마다 표현이 다른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들어올 때 그분들 인원 체크나 신원 사실관계 확인을 누가 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입경'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라산이라든가 또는 인천공항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2명이 체크되지 않은 인력이 들어온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 저희가 들어올 때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소속으로 왔느냐에 대해서는 북측이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선수단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수단의 일원으로 오는 2명은 다른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아이스하키 때 같이 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저희가 파악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체크되지 않은, 들어올 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인력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위원 조 장관, 나도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뉴스에 나온 것을 봤는데……

북한에서 이번 올림픽 폐막식에 대표단장으로 김영철을 파견한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언론에 보도됐는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받았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영철이는 도발의 아이콘, 유엔·한국의 제재 대상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대남 도발을 주도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당론으로 이 친구 오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이 나갔고, 나는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지금 또 마침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 불참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당의 당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제목을 얘기한 게 그렇다 이거야, 김영철이가. 이런 인간을 어떻게 여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마침 나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입장이 어떤가? 먼저 한번 얘기 좀 들어 봅시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저도 같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함 도발이, 북한이 자행한 그런 도발과 관련해서 2010년도 5월 달이던가 그때 국회 과정에서 북측의 구체적인 사람, 또 구체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확인은 좀 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영철이 북한에서 통일전선부장을 맡으면서 대남관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과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청원 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받았어요, 그런 통보를 받은 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런데 오전에 받았는데 언제 관계부처하고 이 김영철이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결론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국회에서 많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으셨고, 그 과정 중에서 당시 국방부가 밝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 확인 자료를 내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서청원 위원 그리고 그 사람은 천안함 폭침뿐만 아니라 또 목함지뢰 도발,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24 조치가 해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5.24 조치가 왜 있었죠?

○통일부장관 조명균 천안함 이후에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어서……

○서청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5.24 조치도 안 했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감정들이 이 정권

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 아닐 것이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이, 난 지금 의총도 안 들어가서 몰라서 전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서청원 위원 몇몇 위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미국의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김영남 만남을 주선했지요? 그것 통일부장관이 앞장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의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런데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이 같은 사실, 팩트가 미국의 국무성에서도 다 발표를 했고, 또 펜스 부통령 비서실장도 밝혔단 말이에요. 또 북한의 신문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된 내용이 오늘 우리 보도된 내용인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뭐가 이 정부가 잘못이 있다고 왜 사실 확인을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잘못했어요?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 정권이 어떻게든지 미국과 북한 관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것, 그것 누가 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의 진실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도 확인을 안 해 주고, 확인할 수 없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얘기 한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뭐 하지 말라는 지침 받은 게 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청원 위원 아니, 그것 다 외신에서 이미, 미국에서도 발표했는데 당사국인 우리,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장을 마련해 줬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건 잘했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북한이 회담 두 시간 전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파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확인도 안 해 주고 '나는 모르겠다. 내가 얘기할 게 아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누구 정부에요? 국민의 정부지 무슨 문재인 개인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의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조차,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라는 정도라도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지 국민의 세금 갖고 운영되는 대한민국이 왜 미국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성 대변인까지 확인한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뭐로 알고서, 뭐가 무서워서 얘기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 장관이 처음에 만난 남북 그 평창올림픽 회담 때 먼저 미국하고 대화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 9일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얘기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러면 아사히신문에서 보도됐던 작년부터 북한에 두 차례 방문했다는 사실, 사실인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 기념식에서 올림픽 참가하겠다고 얘기하고 조 장관이 1월 9일 날 만났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때 처음 얘기한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얘기한 것까지…… 탐색을 해 보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 만나기로 해 놓고 북한이 잘못해서 두 시간 전에 안 했는데 그걸 왜 말 못 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 다 인정하면서. 제안한 건 사실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북측에 그것 계속 촉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청원 위원 또 응답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아니,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었으면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잘못이 없다 이거야. '사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 못 하겠다' 정도는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청원 위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맞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 누가 뭐……

아니,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남과 북 간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북·미 간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외신에서 자세히 보도되는 내용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오늘……

조 장관, 당장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여당 중진 의원들도 계신데 여당 중진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과거에 여당 할 때, 여당 의원들이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팩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라는데도 못 하고 있는 정부가 앞으로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또 문 대통령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햇볕론자들이 얘기하더라도 그건 나는 잘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대화를 주선한 걸 가지고 말 못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심재권 서청원 위원님……

답변을 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남북 간의 대화라든가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와 협조해 나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소상하게 국회라든가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더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위원 위원장, 이게 만약에 저거하다면 비공개를 해서라도 얘기를 해 달라고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위원장 심재권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희상 위원님까지 질의를 듣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문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께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투명한 정부를 앞세우는 마당에서 한 치의, 국민한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정부의 고민은, 분명히 팩트가 외국 신문에도 났고 또 그것이 인용돼서 우리 신문에도 났고. 이것이 정확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의 추정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서로가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을 외부에 공개 못 했듯이 실패한 것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정부의 고민일 수 있고 또 국제 관행상 상대방의 정식, 공식적인, 당사자의 무슨 전말에 대한 해명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당장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대로 알고 있어도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

○문희상 위원 그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책임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했고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입니다. 나는 그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북한 팀의 참가, 북한의 참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 의전, 비용 또 그거에 따르는 상대방 어떤 정상들의 의전적 홀대 이런 많은 문제가 얽혀 가지고 폄하하려는, 폄하보다는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무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신경 써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근본적인 것 자체를, 큰 걸 흐리면 안 된다. 쥐 잡으려다 독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평창올림픽이

갖는 의미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나다는 것을 전제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된다는 당위가 있고 마무리가 성공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소소한 것, 지엽말단적인 걸 가지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꼬리가 본체를 흔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희상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나는 평창 이후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인영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이번 문제의 핵심은 평창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장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포스트 평창이건 비욘드 평창이건 어쨌거나 이 이후에 어떻게 한반도의 남북대화가 북·미 대화와 이어져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는, 북핵의 해법까지 되는 그런 것의 아주 중도한 기로에 섰다. 따라서 이후의 전개는 우리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보고상의 현 국면을 장관께서, 통일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병행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기본 시각과 정곡을 자꾸 찌르는, 따라서 그 해법의 방향도 잡힌, 그래서 대동소이한 문제 가지고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방카가 오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문희상 위원 그러면 북한에서는 김영철이 단장으로 온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하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문희상 위원 그 위상이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위상이?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급입니다.

○문희상 위원 조평통 위원장이 휘하로 따라온다기에 위상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방카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문희상 위원 김여정과 펜스하고의 그것이 미리 사전에 다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팩트라고 그런다면 지금쯤 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쨌든 북측에서 고위급 대표단 오는 통보는 오늘 오전에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북·미 간 접촉,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패럴림픽에 전 탁구 선수 리분희가 참석합니까? 참여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직 북측에서 패럴림픽 참석자 명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지금 누가 온다고까지 판단은 못 합니다만 일단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 있는 북측 선수단이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를 저희가 좀 놓고 파악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문희상 위원 나는 그 기회도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했던 현정화가 현재 있고 그것이 역사적,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아주 좋은 전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 가지고 그림을 만들면 아마 국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앞으로 남북대화나 북·미 대화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북의 탁구 시합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번 차제에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의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잘 유념해서 혹시 오게 된다면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번 한국·북한·미국이 일단 회담을 같이 하자라고 합의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NCND지만. 그리고 어쨌거나 그건 합의하는 과정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팩트가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북·미 회담을 가지려 했다는 점에서 나는 이것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나는 그 약속을 했다는 게, 셋이 만나서 어떤 의논한 단계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북·미가 따로 만나게 하는 그런 게 두 시간 전까지 있었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굉장히 청신호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들이 오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미국과 북한이 아직 상당히 많은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서로 대화를 할 의사는 있다 하는 것까지 확인된 점은 일정한 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 나는 미국의 태도에서도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2월 14일 날 펜스 부통령도 이를테면 탐사회담의 가능성,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지를 담은 그걸 하는 그런 대화는 필요하다는 것의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틸러슨 미국 장관도 CBS 시사프로그램 2월 18일 자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북한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보면 대화의 절절함이 북한 이상으로 미국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코피전략에 관해서도 손턴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인사청문회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코피전략 없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 보면 이제 대화 국면으로 서로가 갈 때까지 간 것이다. 북한도 목에 찼고 미국도 목에 찼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전망을 하는데……

일본도 계속 딸랑딸랑 그러다가 요새 보니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같이 강경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서라고 전달하거나 그런 촉구에 대한 북한 반응을 듣기 위해서라도 대북 접촉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신보의 위치, 북한이 어느 정도냐면 조선신보 2월 12일 자를 보니까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지금 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북측이 핵시험이나 탄도로켓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조선신보, 거의 관보 비슷한 성격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가능성이 무르녹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하는 그런 방향 쪽에 일정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은 그러나 여전히 상당히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살얼음판과 같은 그런 위험요소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이어 나가고 키워 나가느냐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민주당 대전 서구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파견하겠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통보받으셨다고 그랬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공식 통보를 받기 전에 사전에 연락받으신 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미국과 한국의 제재 대상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관계부처에서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제재는 미국에 대한 여행 금지기 때문에 김영철이 남한에 오는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서로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측에 알려 주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내에 입국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한국에서 김영철의 제재 대상 범위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금융 제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행하는 것 자체, 한국 방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금융활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러면 저희가 현재의 어떤 절차라든가 제재 내용으로 보자면 김영철의 남측 방문을 불허할 그런 규정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문제는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하에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표단 중에 이방카 대표단장을 비롯해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표단에 들어가 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미국 대표단에 그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외에도 지난번에 왔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오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김여정 부부장과 펜스 부통령의 회담이 막판에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이방카 대표와 김영철 간의 회담이 부담스러웠다면 그 밑에 급에서의 사실상의 탐색적 대화를 할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빨리 시작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이방카의 방한 계기에, 또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는 계기에 미·북 간에 대화가 실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현재로서는 좀 이르다, 그리고 또 각각의 관련 국가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오늘 폐막식을 포함한 평창 이후에 어떤 로드맵을 가져갈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과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로드맵이 필요한 것인가, 또 그러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비핵화를 이루려면 남북정상회담이 필수지요. 남북정상회담이 되려면 그 전에 북·미 회담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북·미 회담이 되려면 지금 양쪽이, 북한과 미국이 모두 대화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접속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한 모멘텀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물꼬를 트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대한민국이 물꼬를 터 줘서 북·미 회담이 열리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는 큰 로드맵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동의하고 그동안에 몇 차례,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라든가 지난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도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북·미 간 서로 입장 차이를 좀 좁혀 나갈 수 있는 거기에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번 폐막식에도 그러한 접점을 찾는 최대한의 노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기회에 북한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1·2차 남북정상회담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상회담과는 국제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북한이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강조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1·2

차 정상회담은 현재보다 훨씬 여건이 좋았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직접적 위협을 느끼지 않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긴장의 도가 덜했던 데 비해서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사실상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남북관계를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점이고요.

1·2차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6자회담이라는 틀이 실제 움직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6자회담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필요 없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신호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독립된 활동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지금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 또 이번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는 계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얘기를 북측에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이 분야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이 비핵화의 문제가 국제적 문제, 당면한 절실한 문제가 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에 한계가 있고 북한이 먼저 확실한 신호를 보여 줘야 된다는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것 하고요.

또 이번 김여정·펜스의 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소한 탐색적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강조하셔서 적어도 대표가 아니면 차석이라도 탐색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에도 입장이 있고 오늘 바로 또 저희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폐막식에 오는 것을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까지는 로드맵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원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남남갈등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남북대화나 한반도의 평화 해결은 동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국민의 통합된 의사, 통합된 국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 중에는 야당 위원과의 대화 그리고 보수 언론과의 대화, 보수단체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동맹의 균열, 즉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 우리 한미동맹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을 미국도, 우리 국민들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이다 하는 말씀,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정부 스스로도 이번 저희가 1월 달 이후에 남북관계 상황을 관리하면서 특히 우리 야당과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미흡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부분의 지적을 새기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하나는 우리가 특사를 보낼 때가 됐어요. 보내는데 대북 특사의 시기가 북·미 회담 전이냐, 후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점이 되면 북·미 회담 전이라도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역시 이 문제도 저희가 대북 특사를 보내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후로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풀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북·미 대화 시작이라든가 전환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상황에서 판단해서 특사 파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도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당시에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밝힌 입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어디에서 이것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

○윤상현 위원 우리가 지난 정부, 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은 김영철이다. 연평도 폭격의 주범, 배후가 누구입니까? 김영철입니다. 그 당시에 정찰총국장입니다.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뒤의 배후 인물이 누구입니까? 김영철입니다. 이게 다 국가정보원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내건 원칙이 뭡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사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그대로 유지됐어요.

현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현 정부의 입장, 천안함 폭침.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 정부의 입장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윤상현 위원 다름이 없지요? 천안함 폭침의 주범, 당연히 처벌해라. 그러면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처벌 대상 아닙니까?

김영철이 지금 이 순간 왜 오려고 합니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지금 현재 김영철은 북한에서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대남 관계를 전체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지금 당장 온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우리 제재 리스트 또 국제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물 아닙니까? 촘촘히 짜인 대북제재망에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깨트리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천안함 폭침을 미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종북세력과 연대해 가지고 반미 투쟁에 불을 댕기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남사업을 하러 오겠다는 게 김영철의 목적입니다.

김영철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 아닙니까? 처벌 대상이지요. 그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전쟁범죄자이고 살인자입니다. 오히려 군사재판정에 서야 할 인물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결국 김영철에 대한 방남 수용? 이것은 철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어느 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 안에는 꼭 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은 여건이 조성되면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여건이 조성이 안 되면 철회할 수도 있네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 철회한다, 안 한다까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윤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하는 원칙이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 내는 게 회담의 목적 아닙니까? 만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닙니다.

○윤상현 위원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에 임하는 원칙, 전제 이런 것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어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 나가고 또 그것을 저희가 풀어 나가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윤상현 위원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원칙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목표입니다.

○윤상현 위원 목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윤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일본은 아베·트럼프 정상 간 통화 2월 14일 날 해 가지고 뭐라고 했나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회담 응하지 않는다. 우리도 같은 입장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비핵화는 당연히 목표로 접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바로, 바로 입구에서부터 비핵화를 북한이 포기하겠다고……

○윤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담을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회담을 하고 그 시간을 하면서 비핵화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비핵화 문제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미국의 정보 당국이 얘기하는 북한 핵무장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3월 달까지 끝낸다는 것 아닙니까? 5000만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결국 북한에게 인질이 되는 이 긴박한 시점에 북한의 비핵화, 이게 미국과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전제가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급박한 순간인데 전제가 안 되고 그렇게 시간을……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시간을 늦추면 오히려 어려워진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일본·한국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 정도로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 조성,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김여정의 답변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답변은 없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대로 알리겠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체적인 내용,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하겠다, 보고하겠다, 이런 언급은 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보고하겠다. 우리 측에서 북한 대표단한테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윤상현 위원 언급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윤상현 위원 장관님이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님께서도 하셨고요, 저도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언론보도에는 안 나옵니까?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합니까?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를 다 해라, 왜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안 나옵니까? 그게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보도 통제를 한 것같이 일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어느 정도는……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비핵화가 빠진 회담 그것은 벙어리 회담이다, 절대로 그런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핵화 없이 다른 회담만 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에 핵무장 시간을 벌어 주는 꼴이 된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일각에서 대화 유지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좀 완화해 주자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혀 그런 것은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윤상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윤상현 위원 복합적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윤상현 위원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북한하고 대화가 시작됐고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대화에 나온 가장 주된 이유는 강력한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제재가 없었으면 대화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화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바쁘지요. 북한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시간에 사실상 핵무장 완성을 위한 마지막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가짜 평화를 위해서 미소를 짓고 있지요. 그러나 뒤로는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그 이중성, 그게 바로 북한 위장 평화의 본질입니다.

엄중한 현실을 모른 채, 엄중한 현실에 기반을 하지 않은 평화 또 평화라는 게 정치 슬로건으로 변질되는 것 이것은 바로 위장 평화 공세에 빠트려지기 쉽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대북제재, 강력한 대북제재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인 데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다만 남북대화를 하는 동안에 북한에 핵개발 시간을 벌어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우려하는 부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작년, 재작년 동안에 북한이 그러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안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별개로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이번에 북한 대표단 왔을 때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은 김여정에 대해서 네 차례 대통령이 만나시고 네 분이, 장관님 포함해서 만찬을 베풀고 펜스에는 한 차례이고 아베는 그게 없고 이게 과공이냐? 과공은 비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공이 아니라 너무 저자세다, 저자세. 저자세를 가져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 현송월이 부른 노래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어떤 노래인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윤상현 위원 그게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 되는 때 그해 연도 12월 12일 날 광명성 발사 시험을 자축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양조선이여 하나 되는 통일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조선을 우리 민족으로 개사해서 이번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윤상현 위원 거기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을 숭배하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주의에 입각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일을 이루자는 주체사상의 끝판이 그 노래입니다.

한데 그 세뇌술에 담긴 선전·선동을 모르고 장관님께서 그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차례 일어나서 '앙코르, 앙코르' 했는데 북한의 선전·선동술에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그것은 반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어떻게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봤고요.

다만 북한이 어쨌든 이번에 남쪽 주민들한테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북한 노래들보다도 남쪽 유행하는 가요들을 많이 선곡을 했고, 또 그러면서 창법까지도 우리 남쪽에 맞춰서 부르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한 열흘 정도 남짓 되는 연습 기간 동안에 그렇게 북한이 남쪽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북한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북한 나름대로 애썼다, 성의가 있었다'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 앞으로 북한이 그런 노력을 또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북한이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남북관계에도 필요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상현 위원 장관님, 그런데 그 노래 자체는 결국 북한의 선전·선동술이 녹아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일어나서 '앙코르, 앙코르', 세 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그냥 북한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부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애쓴 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정도는 저희가 좀……

○윤상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미리 알아보고 다 따져 봐야 된다는 것, 낭만적 대북관, 어떤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노심초사의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외교부장관 질의에서도 제가 속도조절론과 함께 뉴욕타임스가 '이번 한국의 대북 접촉은 승리다, 한국의 승리다' 해서 이게 마치 북한 접촉을 둘러싼 한미 간의 경쟁같이 보여서, 미국은

결국 접촉도 하지 못하고 갔으니 한국의 승리다 하는, 소위 어떻게 보면 운전자론에 대한 어떤 유감을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는 외교부장관한테 깊이 물어볼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께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속도라고 하면 보행 속도도 있고, 걸음을 얼마나 빨리 걷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보폭, 얼마나 크게 뛰어 가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속도조절을 뭘 의미하느냐 할 때 보폭은 대북정책이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보폭이라고 평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보행 속도, 속도는 그 절차……

그런데 문 대통령님 말씀이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보폭을 너무 크게,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적 기대가 너무 큰 것 아니냐. 그다음에 우물가에서 냉수 찾으면 몰라도 숭늉을 찾는 것 보니까 너무 빠르게, 속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폭은 아까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얘기는 기자 질문이,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겁니까? 정부가 그런 각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이 그러는 겁니까? 진보가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보수가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전체 국민이 그런다는 겁니까? 누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누가 숭늉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수혁 위원 제가 너무 분석적이었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적절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좀 너무 성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수혁 위원 정부가?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런 것이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나……

○이수혁 위원 대통령도 정부인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포함해서……

○이수혁 위원 자기 자신도, 대통령 자신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속도도 빨리하지 않겠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쨌든 속도를 빨리한다, 늦게 한다기보다도 여건이라는 것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수혁 위원 대통령님이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을 테고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기자 질문에 답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제가 대통령님 그런 것까지를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수혁 위원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또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어떤 여건 조성을 제대로 잘해서 필요한 때 필요하다면, 시기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때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을, 국민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저도 지금 조 장관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통령님의 의중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미국은 항상 대화 얘기를 할 때 핵 폐기, 단호하게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단계론을 얘기하면 '아, 단계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초두에 핵 폐기를 얘기하면 협상의 분위기도 깨지고 또 협상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핵 폐기 얘기를 적게 하거나 안 하겠다' 하는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단호하게, 펜스도 다 그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접촉의 목적은 회담과 핵 폐기이고 그것을 항상 반복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표현의 기법인데 반복을 통해 가지고, 짧은 말로 반복을 해서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확실한 이미지와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여러 이유 때문에 조금 모호하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마치 핵 폐기가 목표가 아닌 것처럼 그런 오해들을 일반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 선택의 스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듬어지는 게 어떨까. 결국은 조 장관님도 핵 폐기가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가는 과정은 조금 모호하게 하면 어떠냐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다가 핵 폐기는 안 하고 그냥 동결로 끝낼 것 아니야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들을 다듬고 표현을 하더라도 정교하게 하는 게 어떨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유념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혁 위원 처음에 미국이 CVID를 1차 6자회담 초기에 내놨을 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는데 북한 스스로 1, 2년 후에 CVID를 받아들였거든요. 미국은 참 그런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게 절묘한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봐도. 그러니까 좀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져오는 오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3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북 대화 불발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지금 하나 모호한 게 2시간 전에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고 있어요. 미국의 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워싱턴포스트하고 리크(leak) 같은 것 같은데 2시간 전이라고 그러면 2월 10일 11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보면 아마 1시경에 오찬이, 김여정과 대통령님과의 오찬이 1시경에 끝나는, 실제로 1시 십몇 분에 끝났으니까, 1시에 끝나면 바로 김여정이, 제 추론입니다, 펜스하고 접촉을 하는, 청와대에서 바로. 그렇게 했다면, 1시쯤으로 생각을 했다면 2시간 전이면 11시 같아요.

11시면, 문 대통령과 김여정의 면담이 시작되는 시간이 11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문 대통령을 만나서 김여정이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추론을 하면,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하는 것도 보도에 의하면 구두로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한테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면 그 초청이 친서 속에는 없었는지, 만일 친서에 없었는데 11시에 구두로 그것을 만나자마자 얘기했다면 아마 펜스하고 못 만나는 것을 알고 안 만나겠다는 결정과 동시에 정상회담을 제안하라 하는 지시가 온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제 추론입니다.

그 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듭 저희가 앞으로 북·미 간 대화 진입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또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잘 조율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오늘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어제도 강경화 장관이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하면 '확인해 줄 사항 없다', 그런데 어제 비서실장도 여기 국회 와 가지고 '확인해 줄 사항 없다', 오늘 통일부장관도 '확인해 줄 사항 없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국회 가면 그렇게 하자, 하라든지 하자든지 공동으로 했는지 아니면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단어도 바꾸고 표현도 조금 바꾸면서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세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통해서도. 그래서 답을 조금 바꾸는 재치나 기술들이 없었을까.

저는 아까 그 질문한 것에 더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이 있는데 제가 다 질문할 필요도 없고, 대답을 안 하실 테니까. 못 하거나 안 하거나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수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내에서 오늘 주신 지적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원혜영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장관님과 기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감사합니다.

○원혜영 위원 또 새해에는 정말 새롭게, 더 새로운 각오로 또 보다 더 나은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

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 장관님과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속담이나 사자성어 연구도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물가에서 숭늉 달란다'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전혀 번지수가 틀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렇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정도의 경계나 이런 것일 텐데, 전혀 불가능한 것을 또 앞뒤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사자성어로 연목구어(緣木求魚) 이게 맞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연구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우물가에서 숭늉 달란다 하는 게 또 다른 속담이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랴'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김영철이 제재 대상인데 금융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입국 등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 우리가 제재한 내용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데 나는 워낙 이런 문제를 비틀어서 보는 시각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대신 한번 물어보는 건데 김영철이 이번에 북한 대표단 단장 또는 일원으로 나올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제재를 할 때 출입국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금융제재로만 문제가 안 되게 했다 이런 또 기발한 발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통일부나 정부가 그렇게 할 예측 능력까지는 없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김영철에 대한 제재는 2016년 북한 핵실험 이후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전 정부 때부터 있었던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나는 혹시나 이것도 그렇게 예측하고 교묘하게 피할 수 있게 한 거라는 지적 같은 게 나올까 봐, 우리 통일부가 그런 예측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3월까지 끝낸다고 북한에서 핵 완성을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제가 공식적으로 접한 바로는 지난해 말 그리고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걸 안 할 거라고 보는 건 아주 순진한 생각이지만 이 형식논리에 의하면 핵무력을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리는 없는 거지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이 논리로는?

○통일부장관 조명균 논리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논리로 보자면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정보 당국의 평가는 북한이 핵 투발 수단,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좀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원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들 굉장히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어쨌든 그쪽에서는 '우리 완성했다' 그러면 형식논리상 완성했는데 더 완성할 건 없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원혜영 위원 수소탄을 개발했나요, 북한이?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은 개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군사적인 목적, 그러니까 무기 개발의 목적보다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실험할 때 그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 자기네들 존재의 과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런 게 도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억제시키고 반 발자국이라도 북이나 미국이 좀 더 대화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투발 수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험발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의도를 아직 저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한의 선전매체, 조선신보 같은 데서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것도 보자면 오히려 이런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는 게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실질적인 완성을 좀 늦추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것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어쨌든 그러한 틈새를 잘 살려서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하는 게 조정석에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원혜영 위원 몇 차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아까 북 대표단과 대화한 내용을 소개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대표단이 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는 것 빼고 그래도 여기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보고드리면 좋을 만한 사항 그런 게 혹시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미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좀 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라든가 핵 문제 해결이 함께 진전되지 않으면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은 남북 고위급회담 또 지난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 접견 때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저희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한미 군사훈련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예정된 것이고 하는 쪽으로 봐야 된다,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핑계로 해서 과거 같이 도발을 한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작년과 같은 긴장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기네가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북한에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단 여 종업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면서 현재 단계에서 북한 입장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진전을 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저희가 남북 고위급회담이라든가 또 지난번 고위급 대표단이 나중에 접견을 했을 때, 또 같이 저희가 이런저런 오·만찬 계기 시에 북측과 나눴던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거니까 그것을 어떤 도발의 빌미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설명 내지는 설득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측으로서는 일단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평가한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가 되게 되면 북측도 그것을 가만히, 재개된 상황에서 그냥 가만있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네로서도 또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북측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도, 북측이 제기한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것이 우리 남쪽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그런 것의 진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북측에 설명을 했습니다.

○원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탈북민이 쓴 '조난자들'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어 봤어요. 거기 봤더니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는데 정보과 형사가 자기를 담당하고 있고 가끔 연락을 하는데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거부감, 불안감보다는 그래도 나한테 연락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 연락할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이 안도되고 반갑다 그런 얘기를 쓰면서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하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통일부에서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방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지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개발하거나 획기적으로 바꿔서……

○위원장 심재권 원혜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걸 통해서 그 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탈북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야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더 했고 횟수를 두 번 늘렸고 예산을 늘렸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멘토·멘티 사업에 대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멘토 그 행사에 갔더니 멘토로 정해진 분이 악수도 안 하고, 자기소개도 안 하고……

○위원장 심재권 원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그렇게 하더라고 해서 정말 참고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지금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하려고 하는 의도는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의도로 보낸 게 분명합니다. 앞에 보세요. 만경봉 92호 그것 올 필요가 없는 배를 보낸 것이고, 5·24 제재 그것 구멍 내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육로로 다 오면 되는 것을 오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배를 내려보낸다.

숙소가 다른 데 없습니까?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최휘,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 데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그쪽이 그렇게 요구를 해 올 때 '그것은 안 됩니다' 한마디 해 본 적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 안 됩니다' 하고 말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이런 쪽이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것 안 된다. 최휘, 만경봉호 안 된다' 얘기 한마디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통일부장관으로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재 대상이라고는 분명히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주영 위원 북에다가 '너희 이것 철회해 달라, 만경봉 92호. 또 최휘 이것 안 되겠다',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만경봉호는 북측에서 그렇게 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다음에 김영철, 2009년 2월 달부터 정찰총국장이 됐어요. 당시 현역 육군 중장입니다. 대장된 이후에 현재는 통전부장으로서 현역 군인은 아닙니까? 현역 군인입니까, 현역 군인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군인인지 아닌지 더 확인해 보고 말씀 주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주영 위원 김영철이 2009년 2월부터 정찰총국장을 하고 있는데 정찰총국장 임무가 뭡니까? 대남공작 총책 아닙니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지위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확인이 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통일부장관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0년 천안함 후에 국회에서 몇 차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주영 위원 김태영 장관이 2010년 10월에 국회 국방위에서 '김경식, 김영철을 그 배후로 보느냐?', '그렇게 본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아까 윤상현 위원도 지적했지만 국정원 대외비보고서에는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으로서 총책임자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방문 금지, 금융 제재 대상으로 2010년 몇 월 달에 그것 했지요? 오바마 정부 때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주영 위원 2010년 8월 달에 했습니다, 우리 정부 천안함 폭침 발표 이후에. 우리 정부는 2010년 5월에 발표하면서 당시에는 그 배후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북의 소행이다까지만 있지. 그것은 우리가 저쪽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책으로 다 미루어 보면 그 사람들이 총책임자지요.

미국은 거기에 근거해서 테러 총책임자로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서 제재한 겁니다. 그것 알고 계셨어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고 계셨어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배후 책임자로서 미국 방문 금지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 포함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이주영 위원 그것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금 근거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따져 물어보는 겁니다. 통일부장관이 미국의 제재 사유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김영철에 대해서 왜 제재를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EU가 또 제재를 했어요. EU가 언제 무슨 사유로 제재를 했습니까, 김영철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것들은 제가……

○이주영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벌써 그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대남 정찰총국장이면 대남공작의 총책임자로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모두 다 김영철이 총책임자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부정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재고하시겠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에서 저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또 남북관계……

○이주영 위원 남북 고위급회담 대화를 여러 차례 하는데 통일부장관 거의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비핵화라는 징후를 느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으로서도 일단 미국과 자기네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주영 위원 아니, 어제 외교부장관은 그런 징후를 느낄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처럼 북한이……

○이주영 위원 그런 징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주영 위원 있었다고 느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주영 위원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의 큰 걸림돌이 하나 제거된 것 아닙니까? 미국하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직 그렇게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이주영 위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뭘 가지고 그런 징후를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미국과 대화를 한다고……

○이주영 위원 대화는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핵화 징후가 들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주영 위원 어떻게 들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면 어떠한 것을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주영 위원 그렇게 짐작해 가지고 비핵화…… 그러면 비핵화 이것을 의제로 안 하겠다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 북·미 대화든 남북정상회담이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아직도 여전한 입장 차이가 있고요. 그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 느낌을, 비핵화 징후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우물가에서 숭늉 구하는 격이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거의 다 된 거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닙니다. 아직은 저희가 초보고 점점 더 저력을 키우고 이어 나가야 됩니다.

○이주영 위원 보세요. 한마디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올림픽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정말 이런 통일부장관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나이브한 대북 인식으로 인해서 평창올림픽, 북한 선전장으로 만든 거예요.

자, 화면 좀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로는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아직 아무런 변화도 안 보여 주지

요.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한껏 이용해 가지고 선전장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미 공조, 비핵화 공조 훼손시킨 게 이번 올림픽의 모습입니다.

저 가면, 응원단이 저것을 일제히 썼는데 저것 사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조명균 가면이오?

○이주영 위원 예, 가면을 쓴 것……

○통일부장관 조명균 가면은 몰랐습니다.

○이주영 위원 몰랐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주영 위원 그것 다 점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전 활용하는지? 곡명하고 가사들 그것은 다 점검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것은 다 확인합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저것은 왜 사전에 확인을 못 했어요? 휘파람이라는 노래의 미남 청년을 상징시키기 위해서 저 가면을 썼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고 있는 통일부 얘기 보세요. 저 눈에 구멍을 뚫었는데 북에서는 김일성 사진이라면 눈에 구멍을 뚫을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봐야 되니까 구멍 뚫을 수밖에 없지요.

김일성 젊었을 때 사진하고 거의 같은 인상 아닙니까? 저것을 어떻게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평창올림픽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주영 위원 저것 보세요. 저것 김일성 사진 가면 아닙니까? 왜 느닷없이 휘파람이라는 노래에 미남 청년 가면이 등장을 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기회가 되시면 북한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에게 직접 한번 이렇게 모아 놓고 의견을 들어 보셨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주영 위원 그런데 통일부는 '가면일 수가 없다' 이렇게 왜 북측을 대변해 주고 있냐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변이 아닙니다. 대변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한 사실을 그대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주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시간 다 됐다니까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통일부장관님, 최근에 통일부장관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처신과 말씀들을 보면서 세간에서 많은 국민들이 통일부장관님이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아니고 북한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일반 밖에서 이렇게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만……

○윤영석 위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은 민심이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님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입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막식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획하고 또 통제하에 이러한 일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에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북한이 고도로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기획한 그러한 의도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정부가 대처해 나가는 데서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실제로 북한은 사전에 계획되고 서로 간에 합의된 그런 일정마저도 마음대로 휘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강산에서 계획됐던 그런 공연도 다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지금?

김영철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영철,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 맞지요? 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로서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자행한 그런 것으로 국방부 발표를 그대로 저희 정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김영철과 관련해서는 더 확인을 해 보겠다고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영석 위원 김영철이 총책입니다. 현재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또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정찰총국장, 대남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러한 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통전부장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우리 정부의 명백한 제재 대상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맞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 자가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 땅을 밟는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정부와 합의나 조율이 있었습니까?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오늘 통보가 오기 전에 북측하고 김영철이 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협의는 없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러한 모든 것을 사전에 조율하고 통제하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무턱대고 북한에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만경봉호 또 김정은의 전용기 그리고 제재 대상인 김영철의 방남 이것은 모두 지금 궁지에 몰린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압박을 약한 고리인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와해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있다면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술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그러한 의도와 우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윤영석 위원 통일부장관님의 생각을, 판단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윤영석 위원 통일부장관님의 판단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서는 어쨌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걸 여기서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윤영석 위원 지금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이용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와해시키고 또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 이런 것을 균열시키고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그 의도에, 그 술책에 우리 정부가 무방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저희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 위원 자신감 가져야지요. 그렇지만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그게 바로 자신 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마련된 그런 장에서도,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도 그런 말을 못 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1월 9일 회담 또 고위급 대표단 대통령 접견 시에 여러 차례 북측에 전달을 했고, 또 우리가 오·만찬 시에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김여정이나 김영남한테 그런 얘기 해야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자리에서도 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한반도 비핵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분

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윤영석 위원 누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1월 9일 날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다가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한 것이 처음과 끝이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이 과정은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모든 대화의 처음과 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술책과 또 기획된 그러한 과정들에 우리가 다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통일부장관님과 정부에서는 마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들과 자세들을, 처신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영남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그러한 통보가 왔다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당연히.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 사과 이런 것이 없이는 바로 그 총책인 김영남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그런 자세와 대외적인 표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감을 못 가지고 결국 우리 정부가 정말 저자세로 굽신거리면서 끌려가고 있구나. 자신감 있는 정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밖으로 드러난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의 방남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통일부장관께서도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사건과 목침지뢰 사건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과 또 김영남의 입장 표명이 없이는 결코 방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주신 의견의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다만 여러 번 위원님들도 직접 지적하셨듯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상당히 엄중한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많이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야 되고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저희가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북대화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입니다. 그런 사람과 저희가 한번 같이 마주 앉아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상당히 중요한,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이 시간은 북한 핵의 완성을 막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 정부의 핵의 완성을 도와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시간 벌기, 또한 여러 가지 술책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주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더 한 번 생각을 하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 말씀 드릴까 생각합니다.

김영철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온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네요. 형식적인 절차 측면에서는 김영철이 어떠한 제재 요인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일단 김영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하고 있는 제재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한 바도 없고 또 그다음에 우리 독자 제재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또 미국이 하는 제재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미국 제재는 미국 내 여행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제재는 금융제재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어쨌든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제재 요건은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더욱이 지금 북한 핵 문제가 갖는 그런 위중성에 비추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전쟁 중에 전쟁 당사자 간에도 대화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인질범과도 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북핵 문제의 위중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김영철과도 대화할 필요도 있다고 통일부는 생각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저희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대화는 저희가 거쳐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저는 이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아주 잘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김영철 대표단의 수용이 어떠한 국익의 손상도 없고 또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정부가 국민 앞에 잘 설명하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이번 이 건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잘 전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 가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경봉호가 들어왔다 갔다고 해서 다시 만경봉호가 들어오는 이런 일이 포괄적으로 허용된 건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번에 제재의 대상이 됐던 물품이건 아니면 인적 자원이건 간에 그것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이번에 한해서 그러한 것을 허용한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마치 무슨 제재망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앞으로 술술 다 새어 들어올 듯한 이런 것은 결코 아닌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분명히 그런 점도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위원장 심재권 저는 이번 평창올림픽이야말로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참으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고 있고 또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실마리를 찾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응원해 주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세계가 보낸 찬사가 우리의 노력에 대한 찬사로 이어지도록 그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북한의 비핵화는 당연히 이루어야 될 우리의 근본 과제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 가는 과정에서 그 북핵 비핵화의 실마리를 찾아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 부단한 대화 노력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비핵화를 부단히 추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또는 장관께서 대소 간에, 공사 간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비핵화의 중요성,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아주 잘한 접근이고 바로 그게 대화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의 이해가 첫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저는 정부가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그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국회에서 여야에 설명하는 건 둘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보도가 나올 때는 즉각 소상히 그 보도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까지는 일단 북한하고 하는 협력사업 측면은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자체적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도 중단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중단된 상태가 현재까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것도 대북제재의 어떤 해당 사항이 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특별히 해당 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북한 측에서 아직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 간 대화는 재개됐습니다만 조금 더 두고 보는 그런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북한의 입장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진행을 못 시키는 이런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렇다면, 백두산 화산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무려 세 차례나 남북 공동연구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중국·미국·영국·유럽 등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학술회의도 또 공동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 측에서 이런 제안을 해 왔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못 받아들인 측면보다도 어쨌든 그동안에 북한 측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우리 정부가 오히려……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북한이 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위원장 심재권 세 번째, 마지막이 2015년이었더라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전반적인 남북 교류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좀 제한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이후에도 학자들 간에는 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연구가 됐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북한과 다시 접촉을 하면서 같이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저는 이번에 지질연구소 측에서 그런 협의를 해 왔길래 흔쾌히 같이 정책토론을 공동으로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연구,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는 그런 위중성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남북이 신뢰의 어떤 기저를 쌓아 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이 오는 것, 응원단이 오는 것만큼이나 바로 이런 것도, 겨레말큰사전 사업 다시 펴 나가고,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다시 펴 나가고,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함께 그런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벽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 질의를 신청하신……

○정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이 위원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영철의 방문에 관해서 위원장이 보시다시피 여야 간에 의견차가 크고 또 국론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소신은 표명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위원장석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면 여야의 그런 격차를 줄이고 또 야당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를 채근하는 것이 여당 소속 위원장의 업무이지 오히려 정부의 편을 들고 편 가름을 하는 듯한 그런 위원장의 자세는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에 더군다나 우리 외통위원회에서 외교 사

안에서 현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위원장들은 차라리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야 간의 그런 국론 분열을 줄이고 또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방법을 썼는데 어떻게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중재해야 될 위원장님이 어떻게 위원장석에서 정당 색채가 그렇게 농후한 발언을 하시면서 회의를 이렇게 주재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 여당의 중진 의원님들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서 '남북관계는 여야가 같이 가도록 당신들이 잘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아, 우리 여당 의원들이 역시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계시구나. 정말 여당으로서 신뢰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의 태도는 정말 너무 상반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표현은 국민을 향해서 설명하라고 했지만 여기가 국회입니다. 아니, 여야가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조정해야 될 입장에서 그러면 야당 말 무시해도 좋고 국민 향해서 알아서 이야기하라 지금 그런 말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현안에 관한 그런 의견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다른 부분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나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여당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호통치지 마시고 정말 위원장님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한테 '당신들 국민 소리 좀 들어라'고 이렇게 말 좀 하십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답답하지도 않습니까?

○위원장 심재권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아니, 저는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야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아, 과속하더니 드디어 브레이크가 파열되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 갖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유감스럽습니다. 여야가 갈등이 갈수록 회의를 원만하게 하고 정말 정부로 하여금 더 설명하게 해서 원만하게 끝내야지 이렇게 편들면 어떻게 합니까? 유감입니다.

○이주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할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권 예.

○이주영 위원 그 전에도 위원장의 질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정당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질의를 하실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려오셔서 '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으로서 내 소신껏 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오셔서 하시라고요.

○위원장 심재권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하신 적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적어도 그렇게 앉아 계시면, 지금 말씀대로 너무 정당 색채가 강한 편파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야당 위원들, 김영철이 오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데 단칼에 그냥 야당 위원들 말 묵살하고 가서 국민들 상대로 설득 잘해라? 이렇게 위원장이 함부로 편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보겠으며, 여기에 앉아 있는 야당 위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위원장이 저렇게 편파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 앉았는데.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약속하시고 앞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내려와서 하십시오. 그것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윤영석 위원 저도……

○위원장 심재권 예.

○윤영석 위원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려서 유감입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의 그런 행태를 보면 위원장님이기를 포기하신 분 같아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또한 여야 위원들 간의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석에 앉아서 어떤 위원님보다 더 정파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시는, 일방적으로. 또 야당 위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그냥 일거에 짓밟는 듯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이것은 정말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장이기를 포기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항의가 있었고, 그때 그런 발언 하실 때에는 분명히 위원석에서 앉아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또 이러한 사

항이 지금 재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려면 위원장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정파적인 말씀 하시려면 위원석에 앉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교통일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 여야 간에 가치나 또 이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면 그것은 위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권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삼가 주시고, 위원장석에 앉아서. 꼭 위원석에 앉아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각자가 생각하는 정당한 항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와 있고 여러 국민들의 시선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 위원장이 지금 과하게 하잖아요, 위원장이.

○이주영 위원 뭘 그렇게 과하게 했다고……

○윤영석 위원 위원장님이 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주영 위원 아니, 천안함 용사 46인 원혼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인영 위원 생각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주영 위원 뭘 그렇게 과해?

○이인영 위원 그만두라는 거는 과한 거지요.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그만두라고 그러잖아요.

○이주영 위원 내려와서 발언하시라고.

○윤영석 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만두라는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자고요.

○위원장 심재권 의사진행발언 말씀들을 주셨고 저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 사항을 보십시오.

○이인영 위원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심재권 윤 위원, 이제 내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를 이끄는 데 편파적으로 한다 또는 원만치 않게 하고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공정하고 원만한 이런 회의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명백히 밝히고 그리고 저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름 국회법에 따라서 또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여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위배됨이 없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에이, 그렇게 하는 위원장이 없어요.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그렇게 건건이 질의하시는 그런 위원장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심재권 지금 이주영 위원같이 그렇게 품위 없이 하는 위원도 없습니다.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권 내 답변 마저 이야기 듣고……

○이주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정말 우리 야당들, 위원장 인정 못 합니다.

○정양석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주영 위원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면요,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심재권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주영 위원 어디까지 그렇게 가실지 한번 해 봅시다.

○정양석 위원 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도대체.

○이주영 위원 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위원장 심재권 그다음에……

○정양석 위원 정말 그렇게 하시깁니까?

○위원장 심재권 자,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양석 위원 말이 말 같아야지.

○이주영 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심재권 저는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적법한,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관행에 맞지 않습니다.

○이주영 위원 우리는 어지간하면 위원장 다 인정해 드리고 또 앉아서 발언하시는 것도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막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재권 자, 앉으세요.

○이주영 위원 도저히 못 참겠어요, 지금 위원장 하시는 것.

○위원장 심재권 자, 앉으십시오.

○이주영 위원 못 참겠어요.

○위원장 심재권 그리고……

○이주영 위원 정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장 문제 이것 따지고 넘어갑시다, 우리. 확실하게 매듭짓고 갑시다.

○위원장 심재권 그다음에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려면 위원장석을 벗어나서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적이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했어요.

○위원장 심재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것도 살펴봐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영 위원 자,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려면 정회하고……

○윤영석 위원 살펴보겠다는 게……

(장내 소란)

○이주영 위원 다 이렇게 지금 언성 높아지는데 이래 가지고 회의 진행이 되겠어?

○위원장 심재권 그리고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조금도 일탈된 사회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관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양석 위원 잘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위원장이시네.

○위원장 심재권 자,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자, 위원장 문제 이것 매듭짓지 않으면 회의 진행하지 마세요!

○위원장 심재권 보충질의 시간은……

○윤영석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 인정 못 합니다!

○이주영 위원 우리 야당은 그것 못 받아들여요.

○위원장 심재권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못 받아들입니다.

○윤영석 위원 재발 방지 약속하십시오.

○이주영 위원 못 하겠어요.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정양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못 하겠어요.

○윤영석 위원 정회하십시다.

○위원장 심재권 정회할 수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못 하겠어요! 위원장이 그 따위로 하는 그런……

○위원장 심재권 말 삼가세요! 나가세요! 왜 회의를 방해해요!

○이주영 위원 자, 회의를 방해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양석 위원 누가 방해합니까?

○위원장 심재권 나가세요!

○정양석 위원 위원장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위원장 심재권 위원장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상임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 제대로 했는지 돌아보시고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으면 저희들 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윤영석 위원 정회하십시오, 정회!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위원장이 그 자리에 계시면 저 질의 못 합니다.

○윤영석 위원 정회하시지요.

○이주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양석 위원 뭘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하셔야지 뭘 잘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주영 위원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

○윤영석 위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양석 위원 야당 간사가 사회 보도록 하세요. 야당 간사가 사회 보세요. 내려오십시오.

○이주영 위원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넘어가면 우리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거예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영석 위원 위원장이 말이지요, 그렇게……

○위원장 심재권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십니다.

○이주영 위원 다 보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제대로 하라고요! 뭡니까, 이게!

○박병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심재권 박병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병석 위원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태인데요. 지금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는 걸 제안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간사도 안 계시고……

○박병석 위원 10분만 정회하세요.

○위원장 심재권 어떻게, 정회하실까요?

○이수혁 위원 예, 정회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회 괜찮겠습니까?

○윤영석 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10분만 하시지요.

○위원장 심재권 10분으로 한정할까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냥 정회하세요.

○위원장 심재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7인)

강창일	김경협	문희상	박병석
서청원	심재권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윤상현	윤영석	이석현
이수혁	이인영	이주영	이태규
정양석			

○청가 위원(2인)

박주선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장관	조명균
기획조정실장	서호
통일정책실장	김남중
정세분석국장	정승훈
인도협력국장	김병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이강우
남북회담본부장	김의도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이무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임병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황인성
기획조정관	김안나
통일정책자문국장	김점준
위원활동지원국장	전난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고경빈
사무총장	한기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이승환
교역지원실장	김용규